

# 우리나라 使臣服에 관한 研究

—統一新羅時代까지—

인하대학교 의생활학과

金 熹 靖

## 目 次

I. 序 論	3. 下 衣
II. 使臣圖 種類	4. 靴·履
III. 服飾 比較	IV. 結 論
1. 冠 帽	참고문헌
2. 上 衣	ABSTRACT

## I. 序 論

文化는 한 社會와 社會간에 相互 밀접한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 발전한다. 특히 한 社會文化의 특징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服飾은 다른 文化 요소들보다도 사람들에게 밀착되어 변화하는 요소인 동시에 전파와 변화가 용이함으로, 한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이 보다 빠르고 쉬워 그 흔적을 확연히 남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古朝鮮時代부터 中國에 特産物이 소개될 만큼 交流가 잦았고 기타 周邊國과도 많은 人的 交流를 가져 왔다.

使臣 또는 使節이란 '명을 받아 外國에 가는 臣下' 또는 '使命을 띠고 國家를 대표하여 外國에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sup>1)</sup>

우리나라가 外國에 使臣을 보내는 경우는 朝貢, 慶祝, 宿衛, 弔問등 여러가지 經濟, 國防, 外交 및 文化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파견되었으며 파견된 지역에서는 여러가지 목적에서 이들 使臣들

의 왕래를 기록함으로써 오늘날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使臣의 服飾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民族이 진출했던 활동 영역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 着用하였던 衣服의 형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가 된다. 특히 國內의 資料가 빈약한 가운데 視覺的 資料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外國에 나간 사람들이 모두 使臣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外國人의 視覺으로 보고 그린 服飾이란 점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본 研究에서 대상이 되는 人物들이 참여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 公式的인 場面을 그린 것이므로 使臣 또는 使節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며 그림들도 대부분 섬세하게 묘사되어 적어도 어떠한 人物이나 國家를 염두에 두고 그렸으리라 본다. 그러므로 이들 使臣服을 연구하여 봄으로써 우리 服飾에 관한 기록과의 관계 및 당시의 服飾 形態를 살펴보고 그 時代 흐름에 따른 變遷過程을 알아보고

1) 國語辭典(1985), 동아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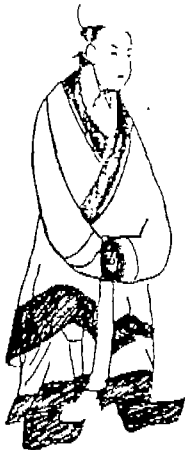
자 하는 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 II. 使臣圖 種類

본 研究에서는 國外에서 발견된 8개의 使臣圖를 다루었다. 이들이 使臣 내지는 使節이라는 가정 하에 名稱은 使臣이라고 통일하였으며 使臣圖의 순서는 현재 밝혀진 推定 연도순에 따라 전개하였다.

### 1. 梁 職貢圖

6세기초 梁에 파견되었던 三國의 使臣의 모습을 담은 使臣圖는 南京博物館 所藏의 梁職貢圖와 故宮博物館에 所藏된 梁職貢圖 두벌등 모두 3점이 남아있다.



도 1. 南京博物館 소장 百濟國使圖  
(金東旭, 百濟의 服飾, p. 62.)

南京博物館 所藏의 職貢圖(도 1)는 梁 元帝 재임중(526~539년)간 편찬된 것으로 北宋 熙寧 10년의 模寫本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당시 梁과 국교를 맺고 있던 35개국 使臣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으나 현재는 12使臣圖만이 남아 있고 이중에 우리나라 使臣으로는 百濟國使圖만이 남아 있다. 百濟에 관한 시각적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sup>2)</sup>

故宮博物館에 所藏된 두점(도 2-1, 도 2-2)중 하나는 唐초기 閻立本이 모사한 24개국 26명의 使臣圖이며 또 하나는 南唐 顧德謙이 모사한 32개국 35명의 使臣을 담은 것으로 두벌 모두에 高句麗, 百濟, 新羅의 使臣을 담고 있다.<sup>3)</sup>



도 2-1. 故宮博物館 소장 梁職貢圖  
(金仁淑, 中國바지原形 考察, 한국의류학회지 Vol 13, No. 3, p.276)



도 2-2. 故宮博物館 소장 梁職貢圖  
(중앙일보 1987. 8. 31.)

2) 金維護(1960), "職貢圖의 時代與作者", 文物 제 7기, pp.14~17.

李弘植(1971), "梁 職貢圖 論考", 『韓國古代史의 研究』, pp.385~425.

3) 中央日報, '6세기초 三國使臣圖 발견', 1987년 8월 31일 기사.

南朝國家인 梁(502~556)과는 三國이 모두 交流 관계를 맺고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高句麗는 11회, 百濟는 5회, 新羅는 1회에 걸쳐 使臣을 보내고 있고 梁에서도 使臣을 파견하고 있다.<sup>4)</sup> 따라서 梁書에도 三國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sup>5)</sup>

百濟國使는 희미하나마 앞쪽에 冠飾이 붙은 冠帽을 턱에서 매어 썼고 깃, 袖口, 단등에 고동색 넓은 선을 댄 右衽의 짙은 연두색 上衣(長襦 혹은 袍)를 입고 역시 같은 색의 帶를 띠었으며 주황색 선을 댄 관할한 분홍색 袴를 착용하고 靴를 신고 있다.

故宮博物館 所藏 職貢圖는 模寫圖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服飾이 百濟國使圖와 유사하다. 그런데 新羅使臣服은 다른 두 使臣의 上衣에 비해 짧으므로 襦라고 생각되며 袴 역시 폭이 좁다. 이는 梁書에 百濟服 名稱이 中國式인데 반해 新羅服은 여전히 固有名稱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高句麗, 百濟가 이미 中國服飾의 영향을 받은 반면 新羅는 아직 固有한 형태를 더 많이 유지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한 高句麗 使臣이 鳥羽冠을 쓰고 있는 반면 百濟와 新羅 使臣은 깃 장식이 없는 冠帽을 쓰고 있는데 두나라의 형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三國이 대체적인 服飾의 構造는 같다할지라도 細部로 들어가서는 나라마다 특징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法隆寺 阿彌陀如來坐像 座臺 人物畫

### (도 3)

日本 나라(奈良) 호류지(法隆寺)에서 寺刹財團을 조사하던 중 1991년 8월 阿彌陀如來坐像 座臺

에서 韓半島서 건너온 使臣으로 추정되는 男子 人物畫가 발견되었다. 이 人物畫는 높이가 15.6cm, 폭이 10cm 크기인데 高松塚古墳 壁畫 속 人物보다 반세기 이상 앞선 時代의 작품으로서 日本 最古의 人物畫로 평가되고 있다.



도 3. 法隆寺 阿彌陀如來 座臺 人物  
(朝鮮日報, 1992. 10. 31.)

학자들은 이 人物畫가 만들어진 座臺가 7세기 중반경에 만들어진 것이며 머리에 새날개모양의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이 中國 唐時代 壁畫에 그려진 韓半島 使臣과 크게 닮았다고 분석하였다. 가미하라(上原和)교수는 “새날개모양의 머리장식, V형의 옷깃등을 볼때 高句麗人 服裝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키가 크고 콧대가 높으며 틀림없이 北方系 高句麗人이다”라고 주장했다.<sup>6)</sup>

三國은 日本에 오랜기간에 걸쳐 文化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끼쳐 큰 공헌을 하였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法隆寺도 이러한 先進技術과 樣式이 잘 나타난 가람으로 원래는 聖德太子가 創建한 것이었으나 670년 불타고 지금 남아

4) 全海宗(1977), 「韓中關係史 研究」, 일조각, pp.38~46.

5) 梁書 卷五十四 列傳 第四十八 諸夷 東夷

高句麗 ‘似幘而無後 其小加著折風形如弁’

百濟 ‘其人形長 衣服清潔... 服章 略與高麗同... 帽曰冠 襦曰複衫 袴曰袴’

新羅 ‘其冠曰遺子禮 襦曰尉解 袴曰柯半 靴曰洗’

6) 朝鮮日報, 1992. 10. 31.

있는 建築은 飛鳥의 餘운을 남긴 白鳳時代 건축이라고 한다.

飛鳥時代의 寺院樣式은 거의가 百濟系 樣式에 따라 건립되었는데, 특히 法隆寺는 현존하는 세계 最古의 목조건물로 佛像과 工藝品이 많은데 그 대부분이 百濟系 예술가가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sup>7)</sup>

한편 高句麗의 영향도 엿보이는데 高句麗人 蠶徽은 종이, 먹, 채색등을 전하였고 金堂의 壁畫를 그렸던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으며 그외에도 多數의 高句麗系 畫家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 또한 이곳에 소장된 '玉蟲厨子'에도 高句麗 영향이 엿보이며 子麻呂같은 高句麗系 畫師는 多數의 佛菩薩像을 제작했음이 日本書紀에 남아 있다. 시기적으로 볼때 高句麗 出身들이 활약한 것이 대체로 7세기 경으로 이때 적극적으로 작품을 남기고 있으며, 이들의 畫風이 당시 日本 繪畫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짐작 할 수 있다.<sup>8)</sup>

이렇듯 당시 日本 文化의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三國의 學者와 技術者들이 적극적으로 기용되고 이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도 3 人物의 服飾은 高句麗 古墳壁畫 人物들이 입고 있는 服飾과 같은 동시에 三國이 공통으로 着用하였다는 의미에서 볼때 이 人物이 高句麗人이라고 확인하기보다는 당시 韓半島人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상이 人物이 使臣이라고 보기에 어렵다. 다만 佛像의 座臺에 그려져 있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 法隆寺와 관계 있는 王族 내지는 貴族의 人物畫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韓半島人으로서 日本에 나아가 있다는 점에서 使臣圖에 포함시켜 분석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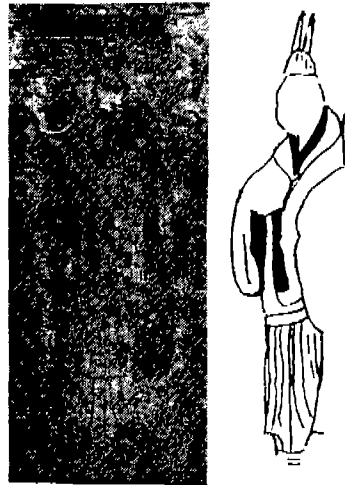
人物像은 끈은 깃, 窄袖, 右衽, 短衣에 布帛帶를 매어 앞으로 늘어뜨렸다. 廣袴는 부리를 오무린

것 같다.<sup>9)</sup> 이러한 형태의 衣服을 高句麗 古墳壁畫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3. 唐 初期 敦煌壁畫 使臣圖

敦煌은 前漢의 武帝가 敦煌郡을 설치한 이래 中國의 西域으로 가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5세기 중엽 北魏 통치로부터 7세기에는 唐의 지배를 받다가 780년경 이후로는 吐蕃의 점령하에 있게 되는데 여기에는 北魏부터 五代, 宋에 이르는 많은 佛教壁畫가 제작되어 있다.

中央아시아美術에서 최초의 韓國人이 등장하는 것은 洞窟 220굴(642)의 敦煌壁畫에 묘사된 韓國人 使臣(도 4)로 생각된다.



도 4. 敦煌 220굴 壁畫중 우리나라使臣  
(敦煌莫高窟 3, 維摩經變相圖, 도 31)

石窟 220호 東壁에 묘사된 維摩經變相은 唐初期의 신선한 畫法이 가미된 걸작이다. 隋나라때의 壁畫와는 달리 敦煌의인 明暗法에 中源의 사실적

7) 関斗基(1983), 「日本の歴史」, 지식산업사, pp.44~46.

8) 安輝濬(1989), 「韓國繪畫의 傳統」, 文藝出版社, pp.395~399.

9) 金美子(1993), "우리나라 三國時代 衣服과 日本 衣服에 관한 研究",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p.39.

인 필선이 어우러져 대상 하나하나 분명하게 묘출되고 있다.

維摩經變相이란 維摩經에서 說法하는 내용을 나타낸 說話圖로 유마거사와 文殊菩薩이 左右에 對坐해 논의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것이 7세기 중엽에 와서부터 圖上學的으로 변화가 일어나 文殊菩薩과 유마거사가 좌우에 마주앉아 담론하던 형식에 帝王圖를 각각 좌우에 새롭게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萬國의 使節이 供養한다는 의미에서 維摩經의 大乘思想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며 皇帝를 중심으로 그 나라의 位相을 높이는 동시에 畫面을 확장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이러한 해석에 입각한다면 韓國人의 敦煌 石窟巡禮는 역사적 사실로 인정해도 좋을 것이라고 한다.<sup>10)</sup>

여기에 묘사된 이 人物은 그 형태가 희미하고 많이 탈락되었으며 반쯤 가려져 있어 뚜렷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머리에는 두개의 깃을 꽂은 鳥羽冠을 쓰고 깃과 소매끝에 黑色襟이 있는 열은 青色의 襦를 입고 손을 모은 자세로 서 있다. 그런데 어깨 위에는 깃과는 구별되는 짙은 청색의 것을 덧착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半臂라고 생각된다. 아래에는 裙을 착용하였는데 이 치마는 주름이 없는 길고 관활한 形態의 것으로써 남자 着裳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것이다. 裙 아래에는 履의 흔적이 보인다.

이 외에도 686년경의 335굴 北壁 維摩像 주위에서 供養을 하고 說法을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韓半島人으로 여겨지는 使臣 2人(도 5)이 있다. 上體만 보이는데 모자 끈을 턱밑에서 묶어 맨 鳥羽冠을 쓰고 깃과 소매에 선이 있는 上衣를 입고 있는데 아래부분이 보이지 않아 襦인지 袍인지가 확실하지 않다.



도 5. 敦煌 335窟 壁畫중 우리나라使臣  
(藝文3報 1992. 9. 2.)

#### 4. 都管七國六瓣銀盒 高麗國人(도 6)

1979년 서안, 崑의 長安城 도정방 일대에서 한 점의 崑代 銀盒이 발견되었다. 소위 '都管七國六瓣銀盒'이라는 것으로 이 銀盒의 뚜껑 위에는 7組의 圖案이 있다. 그 중 한 면 上段의 左右에 '高麗'와 '國'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고 아래의 圖案에는 5인이 원을 그리며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왼쪽에 있는 1人是 앉아 있고 나머지 4人是 서 있는 자세이다. 즉 崑代 高句麗人들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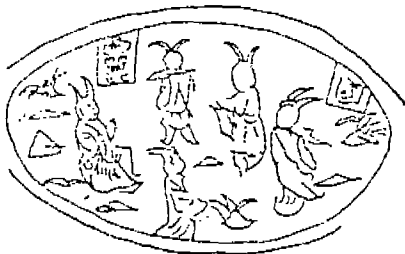
이들이 입고 있는 服飾은 뚜렷하지는 않으나 소매가 넓은 襦나 袍를 입고 있으며 下衣로는 袴나 裙으로 보이는 것을 착용하고 있고 5人 모두 머리에 鳥羽冠을 쓰고 있다.

舊帛書 高麗倭에도 '則青羅爲冠次以緋羅插二鳥羽'라 하여 銀盒의 鳥羽冠 그림과 일치하고 있어 高句麗 古墳壁畫 이후 鳥羽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10) 권영필, '韓國人 敦煌壁畫 642年 첫등장', 조선일보, 1992. 9. 2. 기사

高句麗는 621년 唐에 使臣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624년에는 唐으로 부터 冠爵을 받고 있으며 640년에는 王子 桓權을 入唐시키고 643년에는 寶藏王에게 冠爵을 부여하는등 644년 전쟁 以前까지는 唐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전쟁 이후 668년 羅唐 聯合軍에 의해 멸망할때까지는 긴장관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도 交流는 지속되고 있어서, 淵蓋蘇文이 白金을 唐太宗에게 보내거나 수십명의 官吏를 倂견하였다 고 하는 사실이 三國史記에 남아 있어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唐에는 多數의 高句麗人의 往來가 있었을 것이고 이들의 독특한 服飾이 唐에도 잘 알려져 있었을 것이므로 唐代에 제작된 이 圖案의 人物들은 당시 高句麗人의 특징을 잘 살려 표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 6. 都管七國六瓣銀盒 高句麗人  
(최우장, 高句麗·渤海文化, p.222)

### 5. 章懷太子墓 禮賓圖 使臣(도 7)

章懷太子 李賢(654~684)은 唐 高宗의 차남으로 皇太子에 책봉되었으나 680년 폐위된 후 684년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死後 雍王으로 추증되어 파주에 묻혔다가 중종 2년 乾陵에 陪葬(706)되었으며 睿宗때 다시 章懷太子로 추존되었다.

1971년 발굴된 이 묘에는 50여조의 정교한 壁畫가 前室과 墓道 양벽에 그려져 있는데 뛰어난 회

화 수준을 가지고 주로 現世를 묘사하고 있어 이들 壁畫를 통해 회화 수준뿐만 아니라 생활상 및 복식들을 당시대 작품을 통해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한다.

이 壁畫 중에 “禮賓圖”는 東壁畫面의 일부분으로 6인이 자연스럽게 서 있는데 왼쪽의 3인은 初期 朝服을 착용한 中國官吏이고 오른쪽 3인은 外國使臣으로 禮를 취한 듯 두손을 모은 자세로 서 있는 그림이다.

이들 壁畫에 관하여 畫工이나 기타 제작에 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 단지 太子 사망시나 陪葬時期에 그려졌을 것이므로 그려진 時期는 684년이나 706년으로 생각된다. 禮賓圖 主題는 章懷太子 生存期인 654년부터 684년 사이에 來唐한 使臣을 그렸거나 陪葬期에 入唐했던 使臣을 기준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이며 또는 各國에 대한 일정하게 정해진 틀에 따라 그려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려진 인물들의 묘사가 상세하고 섬세한 점으로 미루어 적어도 어떠한 구체적인 대상을 염두에 두고 그렸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을 때문에 이 使臣의 國籍에 관하여 新羅人 또는 高句麗 流民 내지는 渤海人으로 보는 見解등 많은 논란의 대상<sup>11)</sup>이 되고 있으나 이 사신들의 三國중 어느 나라이든 결국은 韓半島人인 틀림없는 사실이며 高句麗 壁畫이후 우리 服飾에 관한 시각적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 7세기 말 혹은 8세기 초라는 비교적 정확한 年代가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 시기 服飾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머리에는 冠에서 부터 나온 넓은 끈을 턱 밑에서 맨 烏羽冠을 쓰고 廣袖에 깃과 단에 赤色 선이 있는 백색 上衣를 같은 색의 넓은 帶로 매어 입고 있으며 그 아래 주름이 있고 밑에는 同色 단이 붙은 백색의 넓은 袴를 착용하였다.

11) 金熹靖, “章懷太子墓 禮賓圖중 우리나라 使臣 服飾”, 服飾 19, pp.66~68.



도 7. 唐 李賢墓中 禮賓圖  
(中華五千年文物集刊 服飾上, p.146)

### 6. 아프리카시암 宮殿 壁畫 使臣圖(도 8)

1965년 중앙아시아 우즈베크공화국 사마르칸드 시 북부 교외에서 7세기 후반 사마르칸드 왕이었던 왈프만의 궁전이 발굴되었다. 그 궁전 제23호 1호실에는 왕을 알현하기 위해 入朝한 各國 使臣들의 모습이 화려하고도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당시의 사마르칸드는 실크로드의 교통요지로서 各國 文化가 융합되던 곳이다.

아프리카시암궁전 壁畫의 발견자인 구 소련의 고고학자 알바움이 출간한 우즈베크공화국 과학아카데미의 정식 발굴보고서 “아프리카시암의 벽화”에 의하면 이 壁畫는 아랍인들에게 정복당하기 전의 토착세력인 소그드족이 7세기말에서 8세기 초에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이 사절단 중에 다른 중앙아시아인들과는 그 차림새가 달리 깃털이 꽂힌 모자를 쓰고 黃色 上衣와 袴를 입고 環頭大刀를 차고서 拱手하고 서 있는 2인이 있는데 국내의 학계에서는 이들이 隗牟島人일 것이라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단지



도 8. 아프리카시암 宮殿 壁畫 使臣  
(최무장, 高句麗·渤海文化)

### 7. 六尊者圖冊의 供養人(도 9)

이 供養圖는 8세기에 활동하였던 唐의 畫家 盧榜伽가 그렸다고 하는 六尊者像冊 중 제 六圖의 일부로 이 책에는 각 圖마다 한명의 尊者와 供養하는 使臣이 그려져 있는데 여러나라 使臣들과 各國의 特産物들이 그 특징을 잘 살려서 특색있게 묘사되어 있다. 長安人이었던 盧榜伽는 吳道子의 제자로 그의 畫風은 상당히 세밀하고 物像을 정밀하게 묘사하였다<sup>13)</sup>고 전하여지는데 이 六尊者像들에 묘사된 人物들도 그 묘사가 세밀하고 각 人物의 精神과 動態가 상당히 生動感있게 표현되어 있다. 이 중 第十八에 이 供養人가 香爐를 받쳐 들고

12) 김소현(1993), “唐時代의 胡服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p.165.

13) 故宮博物院藏畫集 1, 「中國歷代繪畫」, p.111.

尊者를 향해서 있다.

이 供養者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몇가닥 어깨까지 늘어뜨려져 있고 머리 위에는 두개의 깃털이 꽂혀있는 화려한 鳥羽冠을 쓰고 있으며 冠에서 나온 끈을 턱밑에서 묶고 있다. 그런데 使臣의 머리 형태가 도 2-1 職貢圖의 新羅 使臣과 같은 점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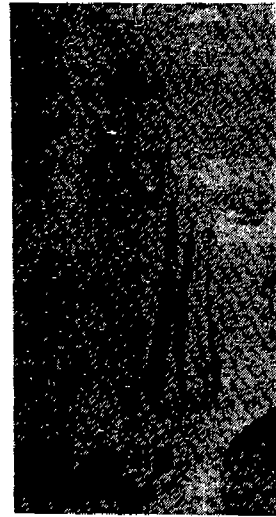
上衣에 깃과 소매끝, 밑단에 黑色선을 두른 주황색 袍를 착용하고 있는데 袍의 소매가 廣袖이고 길이가 무릎 아래선에 이르고 있는 형태가, 章懷太子墓 禮賓圖 使臣 것과 유사하다.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있고 장식적인 끈이 앞쪽에 늘어져있으며 등뒤에는 綬를 길게 늘이고 있다. 袍 아래에는 역시 넓은 黑色 선을 두른 裙을 착용하고 있다.

裙 아래에는 앞이 笏頭履와 유사한 신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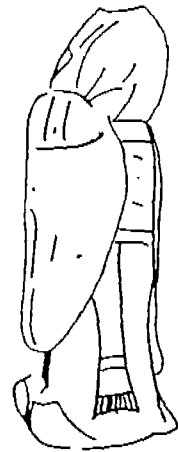
이 人物이 韓半島人이라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당시 唐에서 활약했던 統一新羅人나 渤海人들의 位相을 고려해 본다면 다른 여러나라의 使臣들과 함께 그려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그가 입고 있는 服飾은 畫卷本의 人物이나 기타 國內遺跡들과 類似性을 찾아 볼 수 있어서 韓半島人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新羅는 621년 처음 遣唐使를 파견한 이래 留學, 朝貢, 使節등의 人的交流가 많았고 특히 留學生이나 宿衛등은 장기간 長安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新羅의 遣唐使나 宿衛는 당대 대표인물들이 포함되었다고 한다.<sup>14)</sup> 특히 8세기초 聖德王때는 집중 교섭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聖德王陵 앞에서 있는 文人石像의 服飾(도 10)은 供養者의 것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供養者 역시 당시 唐에 머물고 있었을 韓半島人의 실제 대상을 두고 그렇다고 생각되며 時代나 服飾을 보아 新羅人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나 한편 당시 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鳥羽冠을 썼던 高句麗의 後裔란 점을 고려한다면 渤海國人일 수도 있을 것이다.



도 9. 盧榜伽 六尊者像冊 六圖  
(中國美術全集 2., 도 17)



도 10. 新羅 聖德王陵 石像  
(조선유적유물도감 9, p.112)

## 8. 敦煌石窟 第17窟 발견 畫卷本(도 11)

敦煌 제 17窟은 851년 造成된 것인데 여기에서 발견된 畫卷本은 두루마리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러가지 供養圖와 說法장면들이 線畫로 그

14) 申滌植(1985), 「新羅史」, 이대출판부, pp.201~206.



려져 있다. 그 중 제 56도에는 說法을 들으며 평상 위에 앉아 있는 皇帝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朝臣과 各國의 使臣이 그려져 있다.

이 畫面 가장 왼쪽에 서 있는 人物이 그간의 說法圖의 參與 人物이나 冠飾및 服飾으로 추정하여 볼때 우리나라 사람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統一新羅 834년에 내려진 興德王 服飾禁制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 眞骨에서 부터 平民 남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幘頭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에 나온 인물의 경우 服飾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던 禮賓圖 使臣이나 供養人의 것과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으나 冠帽은 鳥羽冠을 쓰고 있으며 그 형태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 비록 차이는 있을지라도 鳥羽冠임에는 확실한데 그렇다면 興德王 服飾禁制의 幘頭라는 것과 맞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여러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림의 수준을 볼때 線畫로 그려진 것이 그다지 섬세않고 각 인물의 묘사에 있어서도 비례가 맞지 않으며 세부는 생략시키는 등 圖式的으로 그려져 있어 완성도에서도 떨어지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때 敦煌의 여러 그림에서와 같이 실제 대상을 놓고 그렸다가 보다는 各國에 대해 이미 정해져 있던 規格화된 특징들을 그 틀에 맞추어 그리다보니 변화된 服制에 상관없이 그려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도 11. 畫卷本 卷第 56圖  
(敦煌石窟寺院, 17窟발견, p.114)

이와 같은 服飾의 人物이 있는 壁畫가 敦煌石窟 159窟(도 12)과 138窟(도 13)의 維摩經變相圖에 있다.



도 12. 敦煌 159窟 우리나라使臣  
(敦煌莫高窟 4, 維摩經變相圖, 도 88)



도 13. 敦煌 138窟 維摩變相經卷 使臣  
(敦煌莫高窟 4, 維摩經變相圖, 도 193)

159窟은 中唐期에 제작된 것이라고 한다. 中唐期 이후에는 吐蕃이 河西 일대를 점령하여 敦煌이 그 통치하에 있었던 시절로 이러한 세력판도를 받

영하고 있는 듯 維摩結의 帳下에는 맨 앞에서 供養하고 있는 사람이 吐蕃王으로 그 뒤에는各國의 王子 내지는 使臣들이 집결하고 있어 各國의 服飾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사람으로 여겨지는 인물이 뒷편 중간쯤에 두손을 모으고 서 있는데 화면에는 상체만이 보인다.

동근얼굴에서 盛唐期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머리카락은 위로 모아 묶은 듯이 보이며 머리 위에는 작은 관 위에 큰 깃털이 두개가 한꺼번에 꽃혀있는 冠을 쓰고 있다. 白色 上衣는 넓은 소매에 소매 끝과 깃에 赤色 襍을 두르고 있으나 아래는 보이지 않아 袍인지 襦인지는 알 수 없고 허리에는 赤色 帶를 두르고 있어 그 冠帽과 衣服의 형태가 다른나라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晚唐期 壁畫인 138굴 東壁의 壁畫도 같은 주제를 다룬것인데 여기에는 唐 初, 中期와는 달리 화려한 무늬의 盤領袍를 착용한 西域系 使臣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어 시대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앞줄 가운데 烏羽冠을 쓰고 靑色 선이 깃과 소매 끝에 있는 갈색 袍와 白色 裙을 착용하여 다른 人物像과 구별되는 服飾을 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服飾이나 時代像으로 보아 韓半島人이라고 생각된다.

### III. 服飾 比較

#### 1. 冠 帽

사실상 國內外에 있는 人物圖에서 韓半島人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은 冠帽, 특히 두개의 깃을 꽃은 烏羽冠 때문이다. 烏羽冠에 관하여서는 高句麗 古墳壁畫의 男子冠帽나 각종 기록에

남아 있어 그 착용과 형태를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使臣중 高句麗人이라고 밝혀져 있는 梁職貢圖나 銀盒의 경우 뚜렷한 烏羽冠을 볼 수가 있어 高句麗의 烏羽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使臣圖에는 대부분이 턱 밑에서 끈으로 맨 烏羽冠을 쓰고 있다. 百濟國使圖의 경우에는 호리하나 마 앞쪽에 장식이 붙어있어 冠飾에 金銀花를 장식하였다고 하는 기록이나 武寧王陵의 冠飾과 연결지어질 수 있다.<sup>15)</sup>

冠에서 부터 나와 턱밑에서 묶게 된 끈은 가는 끈으로 된 것과 335굴 사신, 法隆寺 座臺 人物과 禮賓圖 使臣 것과 같이 넓은 것도 있다.

冠帽중 특이한 것은 아프리카시암 궁전 벽화의 사신 冠帽이다. 上古時代 烏羽冠의 帽部는 弁狀冠帽이었던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使臣의 冠帽部는 古式의 幘頭를 연상하게 한다. 특히 이 壁畫製作時期는 우리가 이미 唐의 幘頭를 수용하였을 때로 唐 幘頭착용은 당연한 것이며 여기에 삽입된 烏羽는 中國式 冠帽의 採用과정에서 아직은 부분적으로 우리 특유의 冠帽 장식이 남아 있는 자료라고 추측되며 이것은 일률적인 弁狀冠帽에서 새로운 형의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sup>16)</sup>

禮賓圖 使臣과 六尊者圖 供養者 역시 唐服 수용 이후의 작품으로 여전히 烏羽冠을 착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上代의 烏羽冠 역시 新羅의 唐制 채용이후에도 얼마간 계승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sup>17)</sup> 그런데 供養者는 머리에 화려하고 장식적인 모자같은 것을 烏羽冠 아래에 쓰고 있고 帽部도 앞서의 것과 다소 차이가 난다. 南史에는 新羅冠帽에 관하여 “부귀한 자는 錦繡雜采로 모자를 만드는데 中國 胡公頭와 같다”<sup>18)</sup>라고 하였는바 供養者 冠帽가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5) 隋書 卷八十一 列傳 四十六 東夷 百濟 ‘其冠制普同 唯奈率以上 飾以銀花’

新唐書 卷二百二十 列傳 一百四十五 東夷 百濟 ‘烏羅冠飾以金以金釵...飾冠以銀釵’

16) 姜淳第(1993), “우리 冠帽의 始末에 관한 研究”,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20~21

17) 姜淳第(1993), p.82.

18) 南史 卷七十九 列傳 第六十九 夷貊下 新羅 ‘富貴者以錦繡雜采爲帽 似中國胡公頭’

돈황159굴과 畫卷本의 鳥羽冠은 高句麗 古墳壁 畫나 기타 우리나라 鳥羽冠이라고 여겨지는 형태와 다소 차이가 있다. 즉 古墳壁畫등에 나타난 鳥羽冠은 깃털이 冠 옆에서 나와 있는 형식으로 깃모양도 鳥尾나 鳥羽든지 간에 대개 날렵한 모양새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여기의 것은 납작한 帽部 위에 둥글고 넓은 깃이 꽃혀있다.

그러나 이미 이 무렵 唐 주변에는 韓半島 외에 鳥羽를 꽃는 風俗이 존재하지 않았다<sup>19)</sup>고 하고 있으므로 도 11, 12의 冠帽은 鳥羽冠의 변형된 形態이거나 圖式畫된 形態가 아닌가 생각한다.

도 3의 冠帽은 양끝이 삼각형으로 뾰족하여 전체적으로는 鳥羽冠과 유사한 形態를 띠고 있으나 鳥羽冠의 특징인 깃털 장식이 있는 일반적인 鳥羽冠과는 形態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衣服의 선들이 비교적 잘 묘사된 점을 고려해 볼때 이 冠帽가 과연 鳥羽冠을 그린 것일까에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形態의 冠帽가 이외에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2. 上 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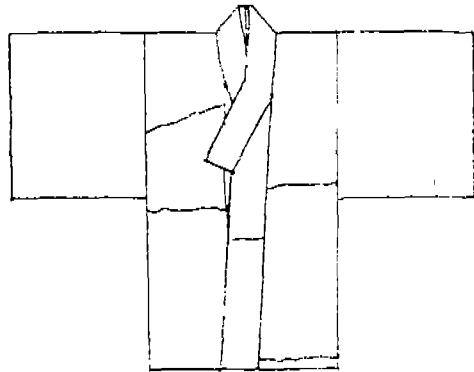
使臣들은 上衣로 襦 혹은 袍<sup>20)</sup>를 착용하고 있다.

襦가 확실한 220굴 人物, 法隆寺 座龕 人物, 아프리카시암 宮殿 壁畫 使臣을 제외하고는 종아리 길이의 袍를 착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깃과 袖口, 단 등에 褙이 붙어 있으며 대개 右衽인데 허리에서 넓거나 좁은 帶로 여미고 있고 그 매듭의 위치가 모두 앞쪽이다.

소매 넓이는 時期가 앞서는 使臣服에 비해 後期로 갈수록 관할해져 供養者圖나 畫卷本의 경우에는 袍의 길이와 같은 정도로 넓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袍는 中國 것과 달리 袍의 길이가 발끝에까지 이르지 않아 長襦인지 袍인지에 관하여 論難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衣服이 中國服飾의 영향과 수용에도 불구하고 高句麗 古墳壁畫時代로부터 統一新羅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어 우리 服飾의 특징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百濟國使圖의 袍는 襦를 약간 길게한 전형적인 동방의 袍인데 깃의 아래부분이 袍의 단까지 연결되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이 袍를 正倉院의 椽袍(도 14)와 연결시키고 있다. 椽袍는 깃의 처리가 목판깃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7세기경 韓半島로 부터 전래된 하나의 새로운 스타일 같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sup>21)</sup>



도 14. 正倉院 소장 椽袍  
(金東旭, 百濟의 服飾, p.62)

도 2-1의 百濟使臣 袍의 어깨부분에는 우산같이 생긴 文樣이 양어깨에 있는데 이것은 高句麗服飾에서 보이는 원무늬와 함께 현재 百濟服 文樣으로써는 거의 유일한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文樣의 形態나 意味에 관한 研究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19) 杉本正年(1984), 「東洋服飾史論攷」, 東京: 文化出版局, p. 317.

20) 이 袍에 관하여 中國 袍의 概念과 다르고 周書, 北史등의 백제조에 '衣似袍而袖微帶'라고 하는 기록에 근거하여 長襦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金美子(1993), p.3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固有의 袍는 '直領交衽式 長襦 형태'의 袍'라고 하는 견해 (김해영(1990) "우리나라 袍의 類型 및 源流에 관한 研究", 服飾 15, p. 85.)를 받아들여 襦외의 表衣로서 上衣는 袍라고 한다.

21) 金東旭(1985), 「百濟의 服飾」, 百濟文化開發研究所, p.62.

도 2-2의 新羅使臣은 다른 使臣들이 앞쪽에 허리끈이 내려져 있는데 반해 허리에 매고 있는 띠가 다른 使臣과는 달리 가늘고 갈도 옆에서 여미고 있는 모습이 革帶나 鈎帶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현재 남아있는 新羅의 鈎帶와 연결지어지는 것 같아 흥미롭다. 도 8의 使臣도 革帶를 하고 교구로 잠고 있는 형태임을 보여준다.

도 6의 唐 初期 使臣服은 소매가 앞에서의 衣服들에 비해서는 넓으나 唐 中, 後期 衣服에 비해서는 넓지 않아 時代的 變遷을 볼 수 있다. 어깨에 두르고 있는 것은 半臂로 보이는데 高句麗 古墳壁畫에도 이미 半臂를 착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安岳 3號墳의 女主人과 侍女, 三室塚 貴族 男子 및 舞踊塚의 彈琴하는 女人 등이 半臂를 착용하고 있는데 使臣의 것은 唐 半臂와 같이 無袖對襟이면서 양옆에 트임이 있는 衣服이라라 생각된다.

도 8의 襦는 다른 使臣 것과 달리 목둘레가 둥근 형태이다. 高句麗 古墳壁畫나 기타 우리나라의 繪畫의 자료를 통해 이러한 형태의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日本 古墳時代 하나와 服飾이나 7세기초 天壽國曼荼羅繡帳의 服飾에는 모두 이와 같은 둥근 것은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日本과 三國과의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형태의 服飾이 三國에서도 直領衣와 함께 착용되었거나 아니면 唐의 圓領에 영향받아 변형되어 7세기 이후부터 착용되기 시작한 衣服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이들이 쓰고 있는 幘頭式 烏羽冠을 볼 때 더욱 이러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나 이외의 자료가 없어 단언하기는 어렵다.

도 9의 供養者像과 도 11의 畫卷本 人物의 服飾은 같은 것으로 보이며 겹옷 안에는 直領이면서 窄袖인 속옷이 엿보이고, 도 12, 13에도 각각 赤色과 白色의 속옷을 입고 있다. 반면 도 2-1, 2-2의 使臣들은 안에 둥근 목선의 속옷이 보이는데 그 위에 입은 겹옷은 안의 옷이 꽤 많이 보이도록 깃을 여미고 있어, 이것은 表衣 안에 입은 옷이 단순한 속옷만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여겨지며 당시

의 겹쳐입는 착용 형태를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後期로 올수록 둥근 목선의 속옷 대신 直領을 가진 속옷을 착용하고 있으므로 아마도 統一新羅 이후로는 둥근 목선을 가진 形態의 衣服은 차차 착용되지 않게 되는 것 같다.

供養者像 衣服의 띠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앞쪽에 내려져 있고 띠 뒤쪽에는 결이 두개인 單綬를 佩用하고 있다. 이와 같은 綬를 唐代 敦煌壁畫 中 朝服을 착용한 人物(도 15)에서도 찾을 수 있다.



도 15. 敦煌壁畫 중 唐의 單綬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p.78)



도 16. 天壽國曼荼羅繡帳의 남자 주름  
(日本古時美術全集 2, 도 78)

統一新羅 聖德王陵 文人 石像(도 10)에도 綬의 흔적이 보이는데 이것은 도 9의 것과는 달리 禮賓圖 朝臣의 綬와 같은 大綬이다. 唐에서는 5品 이상만이 綬를 佩用하는데 이는 祭服, 朝服이 5品 이상의 服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실은 綬의 儀禮的 성격<sup>22)</sup>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供養者服이나 聖德王 文人 石像服은 唐의 간략화된 冠服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金春秋의 唐 公服 수용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 3. 下 衣

使臣들이 착용하고 있는 下衣類는 袴와 裳, 褌이다.

袴는 우리나라 男女의 기본복으로 高句麗 古墳 壁畫와 각종 史書에 나타나고 있다. 使臣들의 袴는 도 2-1, 2-2의 新羅使臣, 도 6, 도 8을 제외하고는 寬袴, 大口袴 형태이며 대개 넓은 異色 또는 同色 선이 있다. 바지부리가 여미져 있는 도 8의 使臣服의 袴는 몸에 잘 맞는 형태인 반면 도 3의 袴는 매우 관촬하게 표현되어 있다.

도 2-1의 高句麗 使臣은 조금 짧은 관촬한 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百濟國使의 것과는 유사한 형태인데 高句麗 使臣은 이 너른 바지 안에 발목 길이의 좁은 바지를 하나 더 착용하고 있다. 이것은 新羅使臣 것과 같은 좁은 바지 위에 禮服用 너른 바지를 같이 착용하였다고 보는데 착용형태가 유사한 百濟國使의 袴 역시 二重으로 입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上衣의 겹쳐입는 慣習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남자의 기본복에서 치마 착용에 관한 자료는 舞踊塚 僧侶가 착용한 주름치마와 金春秋의 고사, 三國統一 후 興德王 服飾禁制의 四頭品 表裳에 관한 기사뿐이다. 그래서 上代의 男子 着裳 여부에 관해 論難이 있어 왔다.

敦煌 220굴의 壁畫는 642년 제작된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使臣이라고 추정되는 인물은 길고 폭 넓은 치마를 입고 있다.

高句麗나 百濟가 中國服飾을 수용한 기록은 없으나 新羅는 649년 공식적으로 唐의 公服을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年代가 빠른 使臣이 치마를 착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두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우리의 기본복 중에 치마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형태는 주름치마 뿐만이 아니라 주름이 없는 褌과 같은 형태도 있어 禮服用으로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高句麗는 이미 漢四郡 때부터 漢의 冠服을 사여받았다고 하고 百濟도 일찍 中國式 公服制度를 도입하고 있었으며 三國이 中國과 잦은 교류를 갖고 있었으므로 上流層에서는 裳, 褌이 포함된 中國服飾을 도입하여 착용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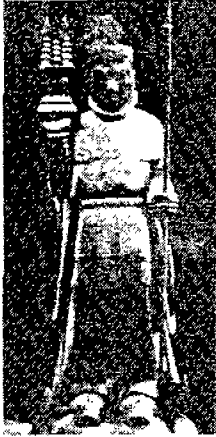
統一新羅期에 그려졌다고 추정되는 도 9, 10, 11, 12, 13 등에는 袴 대신 褌을 착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新羅 貴族層들은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난 唐服飾 名稱과 더불어 唐服을 착용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따라서 興德王 服飾禁制 四頭品 남자의 表裳은 이러한 형태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表裳의 존재는 內裳의 존재도 더불어 암시한다고 보는데 袍나 襦, 袴에서와 같이 겹쳐입는 관습을 보아 가능하다고 본다.

당시 唐에서는 男女服 일상용 치마에 '褌'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한 반면 우리 기록에는 '裳'이라 하고 있어서 中國 名稱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치마의 일반적 명칭으로 '裳'이 쓰이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唐 李賢墓 禮賓圖중 우리나라 使臣이 입은 上衣 아래에 짧은 주름은 中國 服飾과 日本 天壽國曼荼羅繡帳의 男子服(도 16) 및 法隆寺 四天王像(도 17)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나 어떻게 불렀는지에 관

22) 金素賢(1984), "綬에 관한 考察",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p.33.

하여서는 기록이 없으므로 긴주름치마와 구별하여 선행 연구<sup>23)</sup>에서는 ‘襞裳’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것으로서 우리나라 사람이 착용한 모습은 처음 보여지는데 統一新羅期에 들어와 남자의 치마 형태로 가장 현저한 것이 무릎을 덮을 정도의 짧은 주름치마 형태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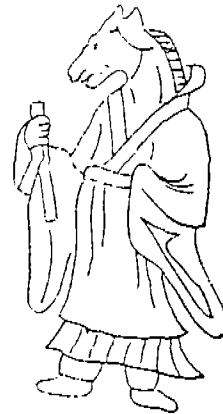
도 17. 法隆寺 四天王像  
(日本美術全集 2, 講談社)

襞裳을 착용하고 있는 護石은 慶州에 있는 神文王陵의 巳像(도 18)와 慶州市 月城 下丘里 절터에서 발견된 塔身 基壇部 午像(도 19)에서 찾아볼 수 있다.

神文王陵의 巳像은 8세기 중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支神像으로 寬袖의 上衣와 함께 주름이 풍부한 襞裳이 보이고, 그 아래에 다시 바지가 꽤 많이 보이고 있어 襞裳의 길이가 짧은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基壇의 午像도 이와 유사한 衣服으로 묘사되어 上衣과 襞裳, 그 아래 袴를 입고 있는데 그 형태가 거의 같고 단지 上衣의 주름표현만이 적을 뿐이다. 노출된 袴의 길이로 보아 주름치마라고 하기에는 그 길이가 짧고, 禮賓圖 使臣의 襞裳이라고 하기에는 上衣가 다소 길며 주름 부분이 치마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다.



도 18. 신문왕릉 巳像  
(姜友邦, 考古美術 154, 155, p.124)



도 19. 9~10C 塔基壇 午像  
(김정희, 神將像, p.61.)

그러면 그 襞裳은 어떻게 착용하는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上衣 아래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着裝한 형태로 미루어 몇가지 방법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첫번째로는 上衣 단에 주름을 부착하여 장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모습은 唐의 武士像(도 20)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武官俑은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제작된 것으로 衣服 묘사 또한 섬세하여 그 형태를 잘 알아볼 수 있다. 걸 갑옷이 벗어진

23) 金英鎬(1995), “裳과 袴에 관한 研究”,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사이로 받침옷이 보이는데 걸옷단에도 잔주름 장식  
식이 붙어 있고 받침옷의 단에도 역시 같은 주름  
장식이 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옷에 적용된다고  
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襜褕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장식단이 될 것이다.



도 20. 唐 武士像  
(中國의美術-陝西省博物館)

두번째는 주름잡은 형태의 것을 허리에 두르는  
것이다. 日本 正倉院에 있는 腰褌가 이에 해당된  
다고 생각한다. 腰褌는 앞뒤로 나뉘어 옆에서 묶  
도록 된 것인데 上衣 안에 입고 나머지 부분이 걸  
옷 밖으로 보이게 된 것일 것이다.

세번째로는 正倉院에 있는 허리 아래에 다른 천  
을 붙인 半臂와 같은 것을 착용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다른 천을 댄 부분에 잔주름을 잡는다면 唐  
의 俑이나 禮賓圖 使臣 것과도 같이 보일 수 있겠  
으나 護石의 襜褕의 경우는 이보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끝으로 基本服의 裳이라고 보는 견해로 金東旭  
도 裳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sup>24)</sup> 즉 남자의 裳

이 짧게 표현된 것이거나 길게 입었던 裳이 形式  
化 또는 禮服化하여 짧아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裳이 이제까지 발견된 高句麗 壁畫에  
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6세기 이후에 사용  
했을 가능성이 크고, 唐에서 들어온 禮服用具의  
하나로 생각되며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渡來人에  
의해 日本에 전해졌을 것이라는 견해<sup>25)</sup>도 있지만  
우리의 주름치마가 축소되어 形式的으로만 남게  
된 형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4. 靴·履

使臣들이 신고 있는 신중 확인할 수 있는 형태  
의 것은 靴와 履로 구별된다.

靴는 高句麗 古墳壁畫와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발끝이 올라간 형태이다.

도 2-1, 2-2 職貢圖 使臣의 靴는 바닥과 뒷꿈  
치의 색이 다르다. 이와 같은 형태의 신은 高句麗  
古墳壁畫에서도 볼 수 있다. 즉 舞踊塚의 狩獵圖  
중 사냥을 하고 있는 騎馬武士들이 이와 같은 靴  
를 신고 있고 舞踊圖의 男女 舞踊手들도 신고 있  
다. 그러므로 이 靴는 男女가 함께 신었던 신이라  
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古墳壁畫와 衣服및 신에 이르기 까지  
여러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는 점은 梁職貢圖 使臣  
의 묘사가 세밀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履를 신고 있는 것은 도 4, 9, 11로 시대가 내려  
오고 中國服飾의 영향이 큰 衣服을 입고 있을수록  
履를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도 9의 供  
養者의 신은 笏頭履 같이 보인다.

#### IV. 結 論

이상에서 統一新羅時代까지의 우리나라 使臣

24) 金東旭(1973), 「韓國服飾史 研究」, 아세아문화사, p.20.

25) 金美子(1993), p.40.

服飾을 살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使臣의 모습이 담겨 있는 最古의 繪畫의 資料인 梁 職貢圖에서 부터 우리 民族은 이후 中國, 日本, 中央아시아 지역에 까지 그 발자취를 남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梁 植貢圖에서 三國의 使臣이 착용하고 있던 襦, 袴, 袍식의 우리의 기본복에서 부터 時代가 내려올수록 衣服이 관찰하여지고 下衣도 袴 대신 裙을 착용하여 時代의 變遷에 따른 服飾의 變遷過程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冠帽 중 烏羽冠은 韓半島人임을 알려주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高句麗 古墳壁畫時代의 烏羽冠은 統一新羅시대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지만 時代의 變遷에 따라 그 樣式에는 變化를 보여 帽部가 幘頭式으로 변모하여 가고 있다.

長襦 形態의 袍도 廣袖로 넓어지고 길이도 다소 길어지고 있다. 안에는 반침옷을 입어 겹쳐입는 慣習을 보여주는데 時代가 앞서서 使臣의 속옷이 등근 것인데 반해 後期로 갈수록 直領의 形態를 보이고 있다. 또한 袍의 裝飾物로 뒤에 綬를 佩用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唐 官服의 수용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기본복 중 대표적인 下衣는 袴이다. 폭이 좁은 형태의 袴와 이와 함께 儀禮의인 寬袴를 덧 착용한 경우도 있으며 唐代에는 寬袴 외에 裙을 입었던 것 같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아래에 袴를 착용하였기에 오늘날까지 着袴의 慣習이 남아 있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敦煌 220窟 使臣의 着裳으로 미루어 이 치마가 기본복 중 하나가 아니라면 唐 公服 수용 이전에 이미 中國 服飾을 착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 民族은 外國에 使臣으로 나가더라도 固有 服飾을 착용함으로써 民族의 긍지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時代와 周邊 狀況의 變化에도 잘 적응하여 이에 맞추어 變貌해가면서도 固有 服飾의 民族의 特徵을 상실하지 않으므로써 對外에 韓半島人임을 드러내 보이는 自主性을 반영

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이 오랜 外來服飾의 영향하에서도 오늘날 까지 우리 服飾을 유지할 수 있게한 저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三國史記 三國遺事 南史 北史 梁書
- 姜淳第, “우리 冠帽의 始末에 관한 研究”, 서울 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 논문, 1993.
- 姜友邦, “統一新羅 十二支神像의 樣式的 考察”, 考古美術 154, 155, 1982.
- 金東旭, 「百濟의 服飾」, 百濟文化開發研究所, 1985.
- \_\_\_\_\_, 「韓國服飾史 研究」,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73.
- 金美子, “우리나라 三國時代 衣服과 日本 衣服에 관한 研究”,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 논문, 1993.
- 金素賢, “綬에 관한 考察”,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4.
- \_\_\_\_\_, “唐時代의 胡服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3.
- 金維護, “職貢圖의 時代與作者”, 文物 제7기, pp.14~17, 1960.
- 金元龍,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아宮殿壁畫의 使節圖”, 考古美術, 129~130.
- 金正희, 「신장상」, 대원사, 1989.
- 金해영, “우리나라 袍의 類型 및 源流에 관한 研究”, 服飾 15, 1990.
- 金熹靖, “章懷太子墓 禮賓圖중 우리나라 使臣服飾”, 服飾 19, pp.66~68.
- 関斗基, 「日本の 歴史」, 지식산업사, 1983.
- 申滌植, 「新羅史」, 이대출판부, 1985.
- 安輝濬, 「韓國繪畫의 傳統」, 文藝出版社, 1989.
- 柳喜卿, 「韓國服飾史 研究」, 이대출판부, 1983.
- 李弘植, “梁 職貢圖 論考”, 「韓國古代史의 研究」, 1971.



- 全海宗, 「韓中關係史 研究」, 일조각, 1977.
- 崔茂藏, 「高句麗·渤海文化」, 집문당, 1985.
- 杉本正年, 「東洋服飾史論攷」, 東京: 文化出版局, 1984.
- 松本榮一, 「敦煌畫の研究」, 東京: 同朋舍出版, 1985.
- 장말원(著) 김영숙(譯), 「漢朝服裝圖樣資料」, 東洋服飾研究院, 1989.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臺北: 南天書局, 1983.
- 진순진(著) 이용찬(譯), 「中國古跡發掘記」, 대원사.
- 「조선유적유물도감」 9, 후기신라편, 조선유적유물편찬위원회편, 1991.
- 故宮博物院藏畫集 1, 「中國歷代繪畫」.
- 「日本美術全集 2」, 法隆寺から 藥師寺, 講談社, 1990.
- 「中國美術全集」繪畫篇2 隋唐五代繪畫, 中國美術全集編纂委員會 1989.
- 「中國石窟—敦煌莫高窟」一, 二, 三, 四, 五, 敦煌文物研究所編, 平凡社, 1980~1982.
- 「中國の博物館」 1—陝西省博物館, 講談社, 1981.
- 「中華五千年文物集刊 服飾上」, 中華五千年文物集編輯委員會 編, 臺北.
- 朝鮮日報 中央日報

## ABSTRACT

### A Study on the Clothing of the Korean Envoy —To the Unified Silla—

From Yang Chikgong-do, the first picture of the envoy to the pictures of the age of Unified Shilla, the traces of Korean envoys were found and they have been continually found in the pictures of China, Japan and Central Asia. The traditional Korean basic clothing which the envoys wore in Yang Chikgong-do has changed with the age.

Korean envoys wore their traditional clothing to show their dignity whenever they went abroad. They have adapted themselves to the change of history and diplomatic policies. However, they could express their identities as Korean people in Hanban-do by enshrining national features, that is, wearing the traditional Korean clothing. From this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traditional style of Korean clothing has continued in spite of being under the influence of the foreign style of clothing.